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이선옥*

차례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3. 남성성 불안은 어떻게 여성혐오 정동으로 발현되는가
4. 혐오발화와 동성사회적 욕망
5. 과학주의와 기계화된 남성성-여성혐오가 혐오주의의 근원이 된 이유
6.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혐오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을 정리하고 여성혐오의 한국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여성혐오를 둘러싼 담론지형을 살펴보면, 첫째, 신자유주의의 불안과 혐오주의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관점 둘째, 근대사회 이후 감정의 관리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분석들 셋째,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젠더 정치학과 혐오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나뉜다. 최근의 연구들은 극우분석이나 파시즘연구의 사회학적 분석들이 놓치고 있는 혐오감정과 혐오발화사이의 동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들로 한 걸음 진전된 논의들이다. 그러나 감정사회학이나 혐오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던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걸이나 자유부인, 춤바람아내, 된장녀 등등 시대마다 반복되어온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식민지 남성성의 불안을 여성혐오로 해소하고 상상적 통일성을 이루어왔다는 논의도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반복되는 여성혐오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헤게모니 남성성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남성성의 요소와 여성성의 요소가 재구성되는 과정과 대립항의 요소간의 우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여성혐오가 혐오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주의를 지배 이념으로 삼고 기술민족주의를 추구했던 근대화 과정을 남성성 구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1900년대 사회진화론부터 우리나라 근대사 전체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이념은 과학주의라 할 수 있다.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위기담론의 해결책이 과학주의로 신비화되었기 때문이다. 196,70년대 기술민족주의는 특히 급속한 근대화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정을 배제한 도구적 남성성을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삼게 된다. 여성혐오 역시도 감정에 대한 혐오, 즉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과학주의와 도구적 남성성 때문에 유독 혐오현상 중에서도 여성혐오를 사회통합의 토대로 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여성혐오, 감정, 정동, 과학주의, 남성성

1. 머리말

여성혐오현상은 남성중심사회의 역사에서 늘 있어왔던 현상이다. 여성혐오(misogyny)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에노 치즈코는 이 용어가 번역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여성을 성적도구로 규정하고 반응하는 호색한 역

시 여성 혐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혐오를 정의할 때 여성을 싫어하는 것(women hating)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여성을 멸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기호화하는 현상 전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¹⁾ 사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의 동성사회적 욕망은 남성중심사회의 숙원과제였을 것이다. 영혼의 교류가 가능한 남성들간의 사랑 대신 생물의 종 번식을 위해 택해야 했던 결혼에 대한 환멸과 여성 멸시는 그리스 철학의 본질적 욕망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대문학사에서의 여성혐오는 모던걸은 못된걸이라는 신여성에 대한 비하와 조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의 「날개」와 김유정의 「아내」, 전향소설의 아내들을 거쳐 해방 후 정비석의 『자유부인』으로 이어진다. 언제나 양풍과 속물성, 허영심에 대한 비난은 여성의 몫이었다. 이후 6,70년대 댄스홀단속과 춤바람주부 비난, 그리고 페미니스트 혐오의 시발이라 할 수 있는 1990년대 이문열의 『선택』과 IMF 이후 된장녀담론까지 다양한 변주를 보이지만 실상 여성혐오의 내용은 늘 남성성의 위기와 두려움을 반영한 현상이었다.

현대문학에서의 여성혐오 역시 천사와 마녀의 이분법을 시계추처럼 오가면서 재생산되곤 하는데 최근 여성혐오는 무언가 달라진 징후를 느끼게 한다. 남성중심사회의 전통적인 여성혐오와는 달리 사회전반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전면화되고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인터넷의 빠른 전파력으로 그 파급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성혐오현상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담론장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호모사이버네틱스²⁾들의 등장으로 혐오주의가 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여성혐오현상의 새로운 특징으로 등장했다. 둘째, 경제적 위기로 인한 사

1)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2~13쪽.

2) 신현우, 「미디어의 신체화와 호모사이버네틱스의 탄생」, 『문화과학』 67호, 문화과학사, 2011.9, 209쪽.

회적 소외와 남성성의 위기가 전사회의 불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윤보라³⁾의 지적처럼 실업의 공포와 언제든 루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루저문화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 때문에 여성혐오 역시도 일부 몰지각한 남성의 일탈현상이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셋째, 정치적 상황의 보수화⁴⁾ 또한 사회적 불안을 내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혐오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여성혐오가 다른 시기와는 달라진 특성과 전염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부의 현상이 아닌 사회적 위기의 징후로 읽어야 한다고 많은 이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일베’(일간베스트갤러리)로 상징되는 인터넷에서의 여성혐오발화는 ‘OO녀’, ‘보슬아치’⁵⁾ 등의 여성혐오단어를 거쳐 ‘맘충’이라는 모성에 대한 조롱조의 언어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혐오현상의 끝에는 항상 이들을 부추기는 ‘여성부’와 ‘꼴페미’⁶⁾들에 대한 비난이 자리하고 있다.

- 3) 윤보라는 일베의 여성혐오를 분석하면서 부제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소수의 루저문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떠다니는 불안이 여성혐오를 사회현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루저로 추락할 공포를 안고 있는 청년층 모두가 루저이거나 잠재적 루저인 셈이다.”(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메이데이, 2013.9. 37쪽)
- 4) 우리 사회의 백래시 현상에 대해서는 『내일을 여는 작가』 2015 상반기 기획 특집 역풍의 시절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정정훈, 『백래시 시대의 권력과 욕망』, 정용택, 『일베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임옥희, 『페미니즘의 새로운 여정』 등의 글에서 보수적 권위주의 권력과 혐오 감정의 관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 5) ‘OO녀’는 2006년 개똥녀 사건 이후 물의를 일으키는 개념 없는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등장했다. 이후 된장녀, 김치녀 등등이 만들어졌고, 주로 속물적인 여성을 비난하는 은어로 사용된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와 벼슬아치를 결합시킨 신조어로 여성이 벼슬인 것처럼 남성을 착취한다는 비아냥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 6) 일베의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대신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여성부가 저지른 어이없는 정책들을 고발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하며, ‘꼴페미’라는 말은 꼴통이라는 비속어와 페미니스트를 섞어 만든 비하의 용어이다.(일베 게시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 석사논문, 2014 참조)

이러한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분노, 회피, 냉소, 무관심 등의 다양한 감정과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감정을 단계적으로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점차 무감각해진다. 혹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고 일부 여성들의 잘못으로 모든 여성들이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긋기, 즉 분리와 배제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⁷⁾ 또 한편에서는 여학생들조차 일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지나친 여성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주장을 펴곤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 단체나 인물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한다. 여성혐오적인 수사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한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혐오는 일상으로 스며들고, 극우주의와 결합하거나 인종차별주의와 결합하는 등 다른 사회적 차별주의와 결합하면서 혐오주의의 다양한 변주를 생산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불안과 혐오주의의 관련성을 해석하는 관점 둘째, 근대사회 이후 감정의 관리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분석들 셋째,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젠더 정치학과 혐오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그러한 연구들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극우분석이나 과시즘연구의 사회학적 분석들이 놓치고 있는 혐오감정과 혐오발화 사이의 동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들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논의의 쟁점

7)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완결된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인물들이다. 위장된 가면을 쓰고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결혼과 신분상승의 도구로 사용한다. 정이현 소설의 인물들은 조안 리비에르의 개념인 가면의 여성성을 수행하는 삶을 다룬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 『트렁크』, 『순수』 등의 작품들이 그러한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 (이선옥 『한국적 칙릿의 특성-정이현 소설의 자기 풍자』, 『여성문학연구』 31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4, 203~204쪽) 이런 극단적인 여성성의 수행자들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여성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을 짚어보면서 현재 여성혐오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다루어야 할 방향성 등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혐오발화와 이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신자유주의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사회적 혐오주의의 탄생에 대해서는 나치의 인종혐오주의나 그러한 국가권위주의에 순종하는 개인의 심리를 분석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개인이 고립과 불안을 떨치기 위해 자동인형이 되어 권위주의에 순응한다는 에릭 프롬의 분석도 이러한 논의의 고전으로 통한다. 파시즘 하에서 시민이 아닌 대중으로 동원된 개인들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희생양을 찾아 희생제의를 치르는 방식이 인종혐오주의라는 파시즘의 분석도 혐오주의 분석의 한 축을 이루어왔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혐오주의는 경제적 배제와 시민적 권리의 박탈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개개인의 감정구조를 구조화하고 사회 지배의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감정 지배가 좀더 내밀화되는 특징이 있다. 에바 일루스는 감정장, 감정 아비투스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시대는 감정의 질병을 발견하고 감정건강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한다. 즉 감정이 생산, 유통, 재활용되는 하나의 감정장이 형성되었고, 이 감정장 속에서 감정은 “작인들의 내면으로부터 작동되는 구조화 메커니즘” 즉 아비투스 메커니즘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루스의 이론은 감정 역시도 외주화한 시대에 사회적 불안이 어떻게 관리, 조절, 통제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⁹⁾

8) 에바 일루스,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0, 90쪽, 126쪽.

9) 정수남, 「노동자의 불안-공포와 행위의 감정동학:외환위기 이후 노동빈민에 관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지위가 불안해진 노동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노동자들, 이들로 인해 권력의 측면에서는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국경 밖의 적이라는 위험 요소들을 향하던 시큐리티가 국경 내부의 위험 요소, 즉 배제된 대중들에 대응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시큐리티 통제는 물리적 지배방식이 아니라 정서적 지배라는 점도 중요하다. 대중의 삶의 조건을 극도로 불안정화함으로써 대중의 기본정서를 불안으로 몰고 가서, 대중이 안정을 강력하게 회구하게 되는 정념의 관리에 기반을 두¹⁰⁾는 방식으로 지배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불안이라는 개인의 감정관리가 통치술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안의 통치가 어떻게 혐오주의로 외화되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3. 남성성 불안은 어떻게 여성혐오 정동으로 발현되는가

앞의 연구들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개인의 불안이 어떻게 통제되고 조절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면 최근의 여성혐오에 대한 분석은 개인의 욕망과 감정이 어떻게 사회를 구조화하는가에 대한 쌍방향적 이해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시도되는 연구들이 감정사회학이라 볼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연구들이다.

감정사회학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0.;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사회의역사』 88집, 2010.;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 석사논문, 2014 등의 연구가 있다.

10) 정정훈, 「사회적 배제와 대중들의 공포」, 『문화과학』, 2014.6, 문화과학사, 50쪽, 54쪽.

감정이 다시 주목받는 시대. 여성혐오의 문제 역시도 감정이 주목받는 시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무한질주 속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소외는 개인의 조절능력의 문제로 치부된다. 자기계발서와 심리학서적의 인기¹¹⁾는 스펙쌓기 경쟁서들과 그 사이에서 고립되고 지친 영혼들의 위무를 담당하는 심리학 서적 두 축으로 이루어진 서점가의 풍경이다. ‘자아실현 내러티브’¹²⁾를 믿으며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열쇠가 토익책과 심리학서적인 것이다. 개인적 위로를 담당하는 심리학서적들의 위험성은 이미 충분히 지적된 것처럼 감정을 개별화하고 개인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감정을 모두 사회구조의 종속변수로 분석하는¹³⁾ 것 또한 개개인의 감정동학을 읽어내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최근 감정 연구들은 감정동학의 구조와 함께 사회적 징후로 읽어내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감정이 어떻게 자아를 구성하고 또 한편으로 사회를 변형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¹⁴⁾ 감정노동,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관용과 공감, 애도, 혐오의 문제까지 다양한 감정의 양태들을 분석하는 최근의 화두들은 개인과 타인이 만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구조화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루인은 여성혐오에 대해 분석하는 글에서 “감정은 단순히 사회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 혹은 타인과 접촉하는 방식이자 ‘내’가 세상과 조우할 때 받는 인상이자 형상이다”¹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타인과 접촉

11) 한지은기자, 『『미움받을 용기』 20주간 1위 기록! 대학생 방학 시즌 맞아 토익책 급 상승, 『마법천자문 32』 출간 즉시 상위권... 전자책, 성인 로맨스 『위험한 속궁합』 1위』, 독서신문, 2015.7.5.

12) 에바 일루즈, 앞의 책, 90쪽.

13) 예를 들어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감정의 구조(structures of feeling) 개념은 시대 이념을 감정을 통해 읽어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개인의 감정동학을 읽어내는 데는 미흡한 이론이었다. (Raymond Williams,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Verso Books, 1980, 22-27쪽.)

14) 손희정, 권명아, 이명호 등의 연구

15) 루인, 『혐오는 무엇을 하는가』,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를 타인과의 관계성으로 새롭게 이해할 때 고립된 감정에 갇힌 개인들을 사회적 개인으로 호명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혐오와 관련된 최근 논문들을 보면, 감정이나 정서 대신 ‘정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⁶⁾ 유전적으로 발생한 생물학적인 반응유형인 “놀람, 흥미, 기쁨, 절망, 분노, 공포, 수치, 경멸 그리고 혐오”가 외부적인 자극에 반응하면서 일정한 자아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정동은 이러한 심리상태와 그로인한 감정행동 등의 모든 현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정동이 중요한 이유는 외부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면서 인간의 활동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⁷⁾ 즉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이 감정이나 정서보다 정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외부세계와 분리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인간의 활동력의 동인이 된다는 점을 주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경험, 인지적 요소 그리고 생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생리학적 상태. 정신분석학은 감정(feelings), 정서(emotions), 정동(affects) 사이에 있는 다양한 차이들을 구별해왔다. 감정은 중추신경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상태(이것은 의식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를 말한다; 정서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게 드러나는 감정을 말하며; 정동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무의식적이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종종 상호적으로 사용되어 원초적인 심리 상태에서부터 복잡하고 인지적으로

현실문화, 2015. 176쪽.

16)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호, 여이연, 2015.

17) 김연미는 스피노자의 『에티카』(추영현 역, 동서문화사, 2008)를 인용하면서 스피노자에게 감정(affectus)이란 외부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면서 인간의 활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연미, 『관용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공감의 은유적 맵핑』, 『법철학연구』 17권2호, 한국법철학회, 2014, 61쪽).

분화된 심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기분 (mood)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정동 상태로서, 지속적인 무의식적 환상에 의해 일깨워지고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킨다.¹⁸⁾

정동으로서의 혐오는 자아를 형성하는 감정구조이면서 타인과 관계맺기의 감정행동이다. 마사 너스바움은 인간의 존재적인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혐오감이 발생한다고 말한다.¹⁹⁾ 혐오감이라는 것은 존재의 취약성, 정체성의 위협 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라고 한다. 체액, 땀, 피, 침 등 인간이 완결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경계의 징후들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 혐오라 할 때 사회적 혐오감은 그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상에 대한 공포로 드러난다.²⁰⁾ 그러나 한 사회의 정체성 위협은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적 불안을 투사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통일성, 완결성, 안정성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취약성에 기대고 있는 불안한 존재의 상상적 통일성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상적 통일성에의 집착은 더욱 강화된다.

최근의 남성성 위기와 여성혐오가 직결되어 있음도 그 때문이다. 불안한 남성성, 가부장으로서의 위기가 남성성에 대한 공격적이고 마초적인 통일성을 갈구하는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신문 기사가 분석하고 있는 광고와 잡지표지(그림1)의 여성혐오현상을 살펴보면, 무너진 남성성에 대한 자조와 혐오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월적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 때 나타나는 마초적 남성성이 표상체계 속에서 과대표장되고 있다. 육체적 힘의 폭력성에 기댄 마초적 남성성이 인간적 가치일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남성성을

18) 정동 [AFFECTS] :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이재훈 외 역, 『정신분석용어사전』, 2002, 한국심리치료연구소, 443쪽.
 19)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238쪽.
 20) 이명호, 『공감의 한계와 혐오의 미학-허만 벨빌의 「서기 바틀비」를 중심으로』, 『영미문학』 9권2호, 한국영미문화학회, 2009, 18쪽.

재구성할 방법이 없는 상태의 퇴행적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출처: 여성신문기사 「“이물랑”, “자기가 뻐 하나만 사줘” . . . 연이은 여성혐오 마케팅 논란」, 2015.10.8)²¹⁾

위의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속물적 여성성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이거나(비난하는 주체의 권위가 확보되는) 혹은 힘에 의한 여성지배이다. 이러한 과잉된 우월성에 대한 상상이 여성혐오라는 정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혐오의 정동과 혐오발화는 자기 불안의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이미지들은 남성성의 경제적 불안과 그로인한 우월적 지배의 상실에 대한 공포의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1) 여성신문 기사 외에도 여성혐오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시사 INLive 2015.9.17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에서는 2015년을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화, 잡지, 예능, 광고 등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4. 혐오발화와 동성사회적 욕망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혐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²²⁾ 혐오를 말하는 자, 혐오에 동조하는 자,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어야만 혐오현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는 감정이 행위가 되는 순간 벌어지는 감정동학에 대한 설명이다. 일견 당연한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혐오현상은 혐오를 말하는 사람이 동조하는 사람을 향한 인정과 구애행위이지 사실 혐오의 대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일베가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김치녀, 홍어녀, 좌꼴 등 혐오의 대상은 젠더나 계급, 인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것일 뿐 언제나 이들의 관심사는 남성동성조직의 인정과 상찬이다. 이들은 배제의 대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열등성을 발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의 회복과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게 된다. 여성을 무임승차한 이기적인 존재로 호명할 때 자신들을 그러한 열등한 존재들과 다른 책임감 있는 착한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무는 수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논리는 여성혐오를 행사할 수 있는 발화자들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군대에도 가지 않고 데이트비용도 내지 않으며, 사회적 규율을 지키는 도덕성도 약한 여성들에 대한 열광적인 비난은 자신들을 착한 주체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 호명의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혐오의 발화는 또 다른 혐오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주노동자나 ‘좌꼴’들 역시 세금을 축내는 무임승차를 꿈꾸는 이들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리가 적용된다.²³⁾ 이들이 처한 조건의 불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불리함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미 이들

22)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72쪽. 차별에는 최소 3명이 필요하다는 사토 유의 『차별론』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차별이란 어떤 이를 타자화함으로써 그것을 공유하는 다른 이와 동일화하는 행위”(42쪽)를 강조하는 설명이다.

23)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윤보라, 임옥희 등의 『여성혐오가 어쨌다구?』(현실문화, 2015)와 한윤영, 황미요조 등의 문화분석 연구가 있다. 특히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의 논리에 대해서는 윤보라, 김학준 등이 있다.

은 충분히 사회적 배려를 받았고, 오히려 과보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이기심을 참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여성혐오발화를 정당화해준다. 과보상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사실이 ‘여성부’와 나대는 ‘꼴페미’로 대표된다. 여성운동의 관변화²⁴⁾를 여성지위 상승과 여성문제해결로 호도하지만 많은 남성들의 불안과 불편한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담론적 전파력을 지니게 된다. 불안한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동일성을 회복하는 감정행위가 혐오발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과학주의와 기계화된 남성성-인종혐오나 계급혐오가 아닌 여성혐오가 혐오주의의 근원이 된 이유

왜 우리나라는 인종혐오나 계급혐오가 아닌 여성혐오가 모든 차별의 근원적 비유가 되었는가.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국가 등 한 사회의 차별적 요소들은 중층적으로 겹쳐서 작동하지만 각 사회의 특징에 따라 도미넌트가 되는 요소들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회에서는 계급(특히 귀족사회의 전통이 강한 사회)이, 어떤 사회에서는 인종(특히 다인종 국가의 경우)이 차별적 요소의 도미넌트가 된다. 그간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감정사회학이나 혐오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여성혐오의 한국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근대 이후 유독 여성혐오가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이 좀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민지 경험과 결핍된

24) 2000년대 이후 여성운동은 젠더 이슈의 제도화로 여성운동과 젠더 거버넌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가 신 관변화되었으며, 여성상위시대라는 착시로 젠더 이슈의 발굴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운동이 구성원의 다양성과 차이를 총화하지 못한다는 과잉대표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09, 143쪽.)

남성성, 해방 후 그에 대한 반발로 강박적인 남성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때 여성혐오가 유독 두드러지는 원인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주의의 남성성 훼손과 관련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혐오의 특수성은 식민지 남성주체의 자기혐오를 투사한 현상에서 비롯된다. 내 안의 불안과 혐오를 여성에게 투사해서 외부에서 온 세력이 아닌 내 안의 타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 경우이다. 특히 급속한 식민지 근대화와 물리적 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변하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민족의 어머니로 상징하고 근대화의 물결에 나서야 하는 남성 대신 민족의 절대정신을 지키는 여성 특히 어머니를 민족의 상징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²⁵⁾ 그 반대의 신여성은 근대화에 대한 매혹과 환멸을 투사하는 대상이 된다.

“자-보시오, 오늘의 녀자가 과연 얼마나 성격상으로 복잡한 심리를 가졌는가를. ... 자기가 눈이 빠지도록 뼈가 골토록 실제에 일을 하면서도, 그 계산은 전여 남자에게 맞겨버리고 마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면 네로부터의 녀자의 성격과 녀자의 생활이 이와가티 이중덕이요, 의외덕임에 대하여 요새의 새로운 녀자들은 엇더한다 .. 그 중의 대다수를 표준잡아 말하자면 종래의 구식녀자들은 가튼 이중생활을 하고 가튼 의외생활을 하면서도 비교적 은은(隱隱)히, 또는 겸손히 하던 것이, 근래의 신녀자는 구식녀자와 역시 똑가튼 이중의 감정과 의외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태도에 잇서서는 어대까지 드러내 뉘코 공공연히 하고 있다 ... 근래 유행의 새녀자들을 보면, 흰 저고리, 검댕 치마, 심하면 분홍 단속곳, 빨건 안고름, 금테 안경에 돈 주머니 딱

25) Prasenjit Duara, “Of Authenticity and Woman: Personal Narratives of Middle-class Women in Modern Chin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June 2-4, 1995, Berkeley, California, 11~12쪽. 자본주의적 민족주의는 반식민지론에 의해 정당화되었고, 이러한 반식민지론은 역설적이게도 정신적 우월성과 남성성의 보존, 그리고 여성의 순결함을 강조하게 된다. 식민지 남성의 열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권위주의적인 남성성을 강화하고 민족 전통을 신비화(정신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때 여성의 몸은 ‘단일하고 순수한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규율화 되는데, 남성 주체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무엇’이 된다. 그리하여 여성은 민족의 어머니 혹은 창녀라는 이분화된 이미지로 지배된다.

들고, 바람에 불너다니듯, 거리에 번적 들에 번적 하는 모양이라든가, 걸핏하면 음악가가 된다고 피아노집 깡깡이 집 차저 다니는 모양 가튼 것이, 아모리 차저 보아도 종래 녀자의 그 더러운 생활 력사에서 근본으로 뛰어나 오려는 노력이나 괴풍이 업고 그저 과도기의 빨조아식 자유괴분 속에서, 더러운 향락뿐을 탐하려는 것뿐인 듯 십다”²⁶⁾

먼저 남자들이 집어낸 녀자들의 좇치 못한 점은 대개 아래와 같다. 일, 참스럽지 못하고 (허위에 물젓고) 이, 어더입고 어더 먹고 놀기만 조와하며 삼, 허영에 뜨고 사, 사치덩어리요 오, 품행이 더러웁고 육, 부형의 의견은 덤허놋코 반대하고 동무들의 의견만 좇는 것을 신식으로 알고 칠, 스스로 약한체 하면서 약하다는 핑계로 특별 대우를 바드려하며 팔, 원집안이 다주 리고라도 자기 한 사람만 각구어 주어야만 만족하고 구, 어느때든지 잘 생긴 갑스로 누어서 먹고만 살려하며 십, 실제 생활은 엇뎃는지 남들에게 그 사람 잘 산다 하는 말만 듯고 십허하고 십일, 덤허놋코 일흠난 사람이면 식 집갈녀고만 하고 십이 남자의 사랑편지를 고대로 정말인줄로 밋고 십삼, 까 닭업시 남자가 사보내는 것을 깃버하며 십사 어머니 압해서만 활발하고 남 이 모힌 곳에서는 병어리 병신가터 쪽으리는 것-들이었다”²⁷⁾

1924년 『신여성』에 실린 이 예문들을 보면, 기시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최근 여성혐오발언과 동일하다. 데이트비용은 남성에게 맡기고, 사치와 허영에 들떠 있고, 약한 체하며 특별대우를 받으려 하는 신여성의 특성은 지금의 된장녀를 비판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이름난 사람이나 부자에게만 시집가려는 신분상승의 욕망까지 닮아 있다.

이처럼 국가 사회적 위기 상황마다 변함없이 나쁜 여자들이 불려나오

26) 기전(起田), 「당신에게 [자기 번민]이 있습니까 =신여자의 치욕 생활 죄악 생활=」, <신여성> 1924. 7, 23-24쪽.
 27) 팔봉산인, 「소위 신여성 내음새 - 본지(本誌) 전호(前號) 남녀학생 시비(是非)를 읽고서-」, <신여성> 1924. 8월, 15쪽.

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여성에 대한 혐오는 국가적 위기담론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여성에서 시작해 전후의 자유부인, 70년대 춤바람 주부, IMF 이후의 된장녀까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의 역할은 동일하다. 위기의 남성성을 회복시키고 남성을 보편적주체로 삼는 국가주의적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IMF 이후의 여성혐오는 80년대 이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여성주의 운동의 결과에 대한 남성성 위기가 맞물려 페미니즘 혐오가 덧입혀지고 있다. 이문열의 『선택』(민음사, 1997)은 IMF 시기에 큰 인기를 얻었던 페미니즘 혐오의 시발적인 소설이다. 작가의 조상이라는 장씨부인의 입을 빌어 페미니즘 전파열에 휩싸여 자본주의의 간계에 놀아나고 있다고 엄중하게 훈계하고 있는데 최근 된장녀 비판의 시발점이라 할 만하다.

어제까지도 성실한 주부로서 나름 자기 성취를 이뤄가고 있던 여성들이 그 애매하기 짝이 없는 자기 성취의 열정에 휘몰려 걷게 되는 길을 보라. 형편이 좋으면 느닷없이 서투른 예술가 흉내를 내거나 뒤늦게 가망없는 학문으로 뛰어든다. 그렇지 못한 쪽은 난데없는 여류사업가 또는 기능인의 꿈에 젖어 사기에 얽히거나 별 소득도 없는 일에 심신이 아울러 녹초가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런 저런 단체가 좌편처럼 펼쳐놓은 싸구려 문화 강좌나 벌써 오래전부터 정원 미달인 하류 대학의 대학원에서 혼자 황홀한 몽상에 젖어 있는 사이에, 또는 연고 판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조악한 상품의 외판원이 되어 친지들을 괴롭히고 다니거나 나이든 비숙련공으로 험값에 노동력을 팔고 있는 사이에 가정은 뿌리채 흔들린다.²⁸⁾

여성의 사회진출 노력은 물론이고, 주변부 노동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의 현실까지 모두 여성의 자기계발 열풍 때문이고, 가정의 위

28)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17쪽.(이선옥, 「신현모양처,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혹-이문열 『선택』, 『실천문학』, 1997.8 참조)

기도 모두 그들의 허영심 때문이라는 논리가 많은 독자들에게 팔리고 읽혔다.

그런데 식민지 남성성의 자기혐오에서 출발한 여성혐오가 해방 이후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이처럼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 번의 전쟁과 식민지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서구의 물질적 힘에 대한 공포와 압축적 근대화가 빚은 위협요소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성성 논의를 할 때 흔히 언급되는 것은 군사주의적 남성성이다. 국가 안보나 군사주의를 작동하게 만드는 남성성, 물리적 폭력성과 단단한 몸을 이미지로 하는 남성성의 구성(영화 <람보> 같은 이미지의 남성성)이 떠오르지만 군사주의와 남성성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군사조직은 단일한 남성성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정희진의 분석처럼,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극단적인 수동적 남성성과 지배하고 조직하는 데 유능한 남성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²⁹⁾ 군대의 힘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한 과잉된 남성성(hyper-masculinity)과 수동적 남성성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헤게모니 남성성이 되기에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었고, 남성성의 하위문화로 남게 된다.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대신해 전후의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떠오른 모델은 산업전사형 모델로 과학주의로 무장한 기계적 남성성이다.

해방 이후 급속한 근대화를 추구한 한국적 근대화는 과학입국, 과학주의를 포방한 압축적 근대화를 특징으로 한다. 서구의 물질적 힘에 대한 공포는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고³⁰⁾ 과학적 합리성의 세계와 대치되는 부정성의 세계로 여성적 감정이 배치되었다. 과학이 지식이라면

29) 정희진, 「편재(遍在)하는 남성성, 편재(偏在)하는 여성성」, 『남성성과 젠더』, 자음과모음, 2001, 27쪽.

30) 『사상계』, 『여원』 등 6,70년대 잡지가 추구한 근대화 이념은 과학주의라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과학입국에 대한 꿈은 국가 개발의 핵심 과제였다.(이선옥, 「1950, 60년대 『여원』 어류현상문예와 교양·과학화 담론」, 『열린정신인문학연구』 12집1호, 원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6 참조)

과학주의는 과학을 신비화한 이데올로기로 구분할 수 있다.³¹⁾ 이러한 과학주의는 사실 해방 후에 새롭게 등장한 이념은 아니다. 1900년대의 사회진화론에서부터 192,30년대의 우생학, 195,60년대의 기술민족주의³²⁾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위기담론에 대응하는 마술적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주의와 남성성의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이어갈 예정인데, 이 글에서는 우선 과학주의가 이성에 대비되는 감성 혹은 감정에 대한 극도의 부정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상적 감정까지도 남성성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계적 남성성이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극단적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성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자신의 내적 허약성을 보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여성혐오를 차별의 기본 원리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5, 60년대 지성사를 대표하는 잡지 『사상계』와 『여원』 등을 살펴보면 과학과 과학적 합리성³³⁾을 근대국가 성립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의 권두언은 이러한 과학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새로운 근대국가는 과학적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감정만으로 묶여있던 민족이 과학적 방법으로 새롭게 이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이 감정만으로 묶이워졌던 이 민족은 8·15와 더불어 급작스럽게 받아들여진 민주, 공산의 두 이념 속에 휩쓸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할된 지

31) 황희숙,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의」, 『대동철학』 26집, 2004, 284쪽.

32) 유호근, 「국가개입의 정치경제:아시아 NIEs의 기술정책을 중심으로」, 『경성대사회과학연구』 23집2호, 2007, 55쪽. 이 글에서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과정은 국가개입이 강력한 적극적 기술민족주의로 구분하고 있다.

33) 『사상계』의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김상현, 「사상계와 과학·기술 담론-1950-60년대 한국의 사회기술적 상상」,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년 봄학술대회 자료집, 김태호,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공과 지식의 정치-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29호, 2013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역 속에서 불행한 분열과 대립상을 이루어 놓았다. -중략- 아무런 이념도 없이 감정만을 가지고 현대국가가 설 수 있는가. 민족이 살아 나아갈 수 있는가. -중략- 먼저 요청되는 것은 개척정신이요, 과학적 방법이다. 먼저 나서고 과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후라야 우리가 바라는 이념의 태동을 볼 수 있고 나라 살림의 올바른 설계도 기대할 수 있으니 참다운 재건과 부흥도 이루어질 것이다.(장준하,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계, 1959.3, 15쪽)

그 외에도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의식으로 지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자주 등장한다. 유진오는 ‘민주주의의 기반’이고 “인간 생활이나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야만을 멀리 하며 감정, 불합리, 비합리에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김팔봉은 “객관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³⁴⁾ 배성룡은 동양적 정체성으로부터 근대의 후진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정체된 동양사회의 청빈하고 검약 자족적인 인간관을 ‘결함/결핍’있는 인간관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새로운 인간관으로 “과학에 입각한 인간”을 제시하고 이를 계몽 교양 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⁵⁾ 과학이 뒤떨어진 나라는 곧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이며 과학을 진흥케 하지 못한 정치는 잘못된 정치 또는 현명치 못한 정치이다. 과학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력을 향상시키는 국민경제의 자본³⁶⁾이 된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맹신은 박정희 정부의 급속한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기술민족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되는 과학주의로 변모하게 된다.³⁷⁾ 장준하는 이러한 60년대의 시

34) 좌담회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김기진, 백낙준, 유진오, 윤일선, 함석헌, 장준하, 안병욱, 김준엽, 『사상계』, 1956.9.

35) 배성룡, 『동양인의 인생관』, 『사상계』, 1953.4.

36) 윤세원, 『국가와 과학』, 1958.5.

37) 『사상계』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주제어 검색으로도 알 수 있다. 민주(200건), 민족(187건), 과학(142건-특집 표제어 등을 제외한 실제 기사는 130건)이 가장 많이 사

작을 상징적으로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이라는 권두언³⁸⁾의 제목으로 알리고 있다. 기술민족주의의 남성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의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 글에서는 식민주의와 과학주의가 맞물려 남성성의 구성이 과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과 지성에 경도된 과학주의 담론이 만들어내는 남성성으로 인해 감정에 대한 혐오와 열망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70년대 작품들에 드러나는 우울증적 근대 남성주체 역시도 이러한 기형적인 감정 배제의 남성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

6.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은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최근 연구경향을 정리하고 여성혐오의 한국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여성혐오를 둘러싼 담론지형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불안과 혐오주의의 관련성을 해석하기도 하고 감정사회학적 관점에서 근대사회 이후 감정의 관리와 권력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젠더 정치학과 혐오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극우분석이나 파시즘연구의 사회학적 분석들이 놓치고 있는 혐오감과 혐오발화 사이의 동학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들로 한 걸음 진전된 논의들이다.

그러나 감정사회학이나 혐오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석에 집중하면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던걸이나 자유부인, 춤바람아내, 된장녀 등등 시대마다 반복되어온 여

용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원』은 가정의 합리화와 가정의 과학화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의식주생활을 수치화하여 계량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들이 매회 생활부록으로 제시되고 있다.

38) 『사상계』, 1962.7.

성혐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라 생각된다. 식민지 남성성의 불안을 여성혐오로 해소하고 상상적 통일성을 이루어왔다는 논의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여성혐오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헤게모니 남성성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남성성의 요소와 여성성의 요소가 재구성되는 과정과 대립항의 요소간의 우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여성혐오가 혐오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주의를 지배 이념으로 삼고 기술민족주의를 추구했던 근대화 과정을 남성성 구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1900년대 사회진화론부터 우리나라 근대사 전체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이념은 과학주의라 할 수 있다.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위기담론의 해결책이 과학주의로 신비화되었기 때문이다. 개화기, 식민지 시기, 해방 후 각 시기마다 과학주의는 우생학, 사회개조론, 기술민족주의 등 지배적인 사회담론을 생산하면서 남성성의 구성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앞으로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196,70년대 기술민족주의는 특히 급속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정을 배제한 도구적 남성성을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삼게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도구적 남성성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만이 아니라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상적인 감정까지 배제되는 기계적 남성성이어서 감정에 대한 극도의 혐오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혐오 역시도 감정에 대한 혐오, 즉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현상과 맞물려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과학주의와 도구적 남성성 때문에 유독 혐오현상 중에서도 여성혐오를 사회통합의 토대로 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극단적인 남성성/여성성의 대립쌍은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왜곡하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모두 부정하게 된다. 특히 이성과 감정으로 극단적으로 구분된 젠더이분법은 인간적 감정 자체를 혐오하는 도구적 남성성을 구성하게 된다.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글의 마무리를 대신

하고 싶다. 그녀는 레비나스의 얼굴, “타자의 방어력을 상실한 불확실한 얼굴”에 반응하는 것 즉 삶의 불확실함을 깨닫는 것이 혐오발화의 권력화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불확실한 얼굴에 공감하는 것이 통치성(법적 권력)과 주권성(통치자들의 초법적 권력) 너머로 사라진 삶의 실체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것이다.³⁹⁾ 인간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혐오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별거벗은 말들의 세계』, 현실문화 현실문화연구, 2015, 176쪽.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233~291쪽.

에바 일루스,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0, 90~126쪽.

우에노 치즈코, 니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2~15쪽, 72쪽.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184~185쪽.

2. 논문

권명아, 「정동의 과잉됨과 시민성의 공간-홍수의 표상과 잠수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15~142쪽.

39)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184-185쪽.

- 김상현, 사상계와 과학·기술 담론-1950~60년대 한국의 사회기술적 상상,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년 봄학술대회 자료집.
- 김연미, 「관용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공감의 은유적 맵핑」, 『법철학연구』 17권2호, 한국법철학회, 2014, 55-84쪽.
- 김정하, 「트라우마와 정동」, 『비평과 이론』 19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47~64쪽.
- 김태호, 1950년대 한국 과학기술계의 지형도,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9~60쪽.
-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 동학, 서울대 석사논문, 2014, 1~191쪽.
-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권 4호, 2009, 141-174쪽.
-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공과 지식의 정치-1960년대 『사상계』 속의 정치적 상상과 통치의 한계, 『여성문학연구』 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6쪽.
-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32호, 여이연, 2015, 12~42쪽.
- 신현우, 「미디어의 신체화와 호모 사이버네티쿠스의 탄생」, 『문화과학』 67호, 문화과학사, 2011.9, 209~243쪽.
- 윤보라,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호, 여이연, 2014.5, 166~180쪽.
-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메이데이 2013.9, 33~56쪽.
- 윤종빈, 한국사회 관용의 수준과 혐오집단, 『세계지역연구논총』 29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163~185쪽.
- 이명호, 공감의 한계와 혐오의 미학-허만 멜빌의 서기 바틀비틀 중심으로, 『영미문학』 9권2호, 한국영미문화학회, 2009, 2~28쪽.
- 이선옥, 「195,60년대 『여원』여류현상문예와 교양·과학화 담론」, 『열린정신

- 인문학연구』 12집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 181~211쪽.
- 임재형·김재신,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 29집 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149~174쪽.
- 정정훈, 「사회적 배제와 대중들의 공포」, 『문화과학』 78호, 문화과학사, 2014.6, 39~56쪽.
- 한윤형, 「왜 한국 남성은 한국 여성들에게 분노하는가 : 여성혐오,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문화과학』 76호, 문화과학사, 2013, 185~201쪽.
- 황미요조, 「문화영역의 여성화와 여성혐오」, 『여/성이론』 32호, 여이연, 2015, 57~72쪽.
- 황희숙, 「과학주의와 인문학의 재정의」, 『대동철학』 26집, 대동철학회, 2004.6, 283~301쪽.

Abstract

Instrumental Masculinity of Techno-Nationalism and Misogyny in Korea

Lee, Sun-Ok

This study attempts to survey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es on misogyny and to analyze the Korean characteristics of misogyny. The discourse topography surrounding misogyny is divided into three areas : first, the perspective to interpret the relation between the anxiety of neo-liberalism and hatred, second, the emotions-sociologic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management of emotions and the power after modern society, and third, the researches analyzing gender politics and the causes of hatred phenomena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Recent researches take a step forward in the discussion to examine the dynamics between hate emotions and hate speech from the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 they probe into the problem which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misses in analysis of the far-righthand researches on fascism. However, while concentrating o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sociology of emotions and hatred, instead they seem to be negligent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particularities of Korea. That would be thought of as they judge was sufficiently discussed about misogyny remarks repeated each era, so to speak, 'Sinyeosung' (modern girls), 'Jayubuin'(Madame Freedom), 'Chunbaram-ane (wives who got hooked on dancing), and 'Deonzangneu' (snob women who are partial to luxury items despite their financial inability), etc..

Indeed the discussion to resolve the anxiety of colonial masculinity and achieve the imaginary unity of masculinity by using misogyny is far from new. Yet it has need to clarify what hegemonic masculinity composition is specifically repeated misogyny, and what ideology is operated in the process in which masculinity factors and femininity factors are restructured and which the priority between the opposite factors is changed. Only by doing so can the characteristics of our society where misogyny forms the backbone of hatred be understood. This study analyzes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which scientism was taken as the ruling ideology and techno-nationalism was pursued, in relation to the masculinity composition. Scientism can be said to be the representative ideology that has passed through Korean modern history from social darwinism in the 1900s, as the solution to the national crisis discourse that can stand up to the West was mystified into scientism. The techno-nationalism in the 1960s-70s comes to take up the instrumental masculinity excluding emotions for the hegemony masculinity while pushing forward the rapid modernization projects. Misogyny can also be said to be a phenomenon that reveals the hatred toward emotions, that is, human vulnerability. It is judged that particularly misogyny in the hatred phenomena is made into the foundation of social integration due to scientism and instrumental masculinity.

Key words : Misogyny, Emotion, Affects, Scientism, Masculinity

■ 본 논문은 2015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